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7일 화요일 음 10월 3일 (10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7℃, 낮 최고기온은 22-24℃고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경주용 비둘기가 한 마리에 '21억원'

대회 수차례 우승 후 은퇴

벨기에에서 경주용 비둘기 한 마리가 21억원에 낙찰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뉴 킴'

올해 두 살인 암컷 비둘기 '뉴 킴'이 15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벨기에의 피파(PIPA) 경매에서 160만유로(약 21억원)에 거래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경주용 비둘기들은 열 살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이해는 지난해 3월 거래된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아르만도'의 경매가 125만2000유로(약 16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가다.

경매소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니콜라스 히셀브레흐트는 "뉴 킴이 암컷이기 때문에 이번 낙찰가를 들고도 만기 힘들었다"면서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더 많은 후손을 번식할 수 있는 수컷의 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 킴'의 경매가는 처음 200유로(약 26만원)에 불과했지만, 중국인 두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낙찰가는 치솟았다.

'뉴 킴'은 벨기에에서 전국 중거리 시합을 포함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은퇴한 상태다. 히셀브레흐트에 따르면 벨기에에는 비둘기 사육사만 2만여명이 있다.

경매에서 이긴 중국인은 벨기에 못지 않게 비둘기 경주가 인기를 끄는 자국에서 뉴 킴을 번식용으로 키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한라칼럼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며칠 전 저녁 무렵 제주시청 근처 식당에서 모임이 있어 서귀포 법환동에서 출발했다. 퇴근 시간과 겹쳐 저녁 1시간 30분 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1시간 55분이 걸렸다.

교통체증

교통인프라 확충의 핵심은 도로의 개설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로 증설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국민 1인당 차 한 대가 될 때까지라고 본다.

월드컵 개최, 특별자치도 등 명분을 앞세웠다. 이렇게 명분만 뚜렷하면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을 직접 집행하며 부수 사업도 여럿 시행한다.

간 도로는 지자체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과거엔 중앙정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제주국토관리청이 있어 돈이 많이 드는 국도의 건설, 유지관리를 담당했던 것이다.

하여간 대한민국 제1의 국제관광도시 제주에는 교통체증이 덜 해야 한다. 그리고 1인당 차 1대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이제는 교통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도 비중을 뒤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



강완길

오라동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마을재정 관련 사업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추위되면 뇌졸중 조심, 119로 문의하세요



강미숙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이다.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인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리가 정비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5분마다 1명이 뇌졸중에 걸리고 20분마다 1명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고 한다. 대한뇌졸중학회 정진상 이사장은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이자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탓에 두려운 질환으로만 인식되지만 환자를 큰 장애 없이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치료기법과 치료제가 충분히 발달해 있다고 한다.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증상이 있어도 지켜보거나 인지가 돼도 119 구급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119에선 구급대 지원 외에도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두고 전문구급대원이 24시간 질병 및 응급처치 상담, 당직 병의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나 응급고급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하고 필요시 구급대도 바로 출동하고 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심장에서 먼 곳, 손과 발 그리고 머리로의 혈류를 제한한다. 따라서 지속해서 뇌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추운 날 외출 시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을 이용해 보온에 유의하고, 사지 마비 등 이상 증상 시 즉시 119에 신고해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시 구급대를 이용 신속하게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overseas and local travel services, featuring 'Special Promotion' and 'Mid-air Travel'.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 Jeju, including kitchen, bathroom, and living area renovations.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Office, listing various public events and programs.

Advertisement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listing various agricultural support programs.